

# 『黃帝內經』의 刺絡瀉血 치료법에 대한 분석

慶熙大學校 原典學教室·暎園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白裕相·金度勳\*

## A Study on the Pricking blood therapy of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Dep.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 Hee University, Dep.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won university.

Baik You-Sang, Kim Do-Hoon

From the Study on the Pricking blood therapy of 『HwangjeNaegyeong』, we conclude as follows:

1. The blood is apt to coagulate because of having concreteness. The blood is mainly coagulate at the collateral Meridian, minute collaterals, superficial collaterals and superficial vessels. By way of the Pricking blood therapy, the Stagnation of blood can be circulated, pathogenic factor removed, Eum-Yang(陰陽) and Gi and blood(氣血) can reach their balance.
2. To bloodletting, we should examine minutely, touch carefully with the region of the stagnated blood. After close observation of the stagnated blood, we should remove the stagnated blood up to clear. At the same time, we should observe carefully the color of the stanated blood.
3. The acupuncture used for the Pricking blood therapy were stone needle, Bongchim(鋒鍼), Chamchim(鑱鍼), Pichim(鈹鍼) and Hochim(毫鍼) etc. After ages, from the base of Bongchim(鋒鍼) the three-edged needle became typical form. The skill of the Pricking blood therapy also became diverse, clinical application became wide.
4. After giving medical treatment with the Pricking blood therapy, reactions are various. Among them are side effects and normal effects.
5. The Pricking blood therapy is usually considered as simple sectional curing method, while it was considered as curing diseases of JangBu(臟腑) or meridians in 『Hwangje-Naegyeong』. Therefore, if we should apply the Pricking blood therapy on the basis of 『Hwangje-Naegyeong』, we should carefully understand the pattern identification according to Meridians and collaterals, and pattern identification of the Jang-Bu organs.

Key Words : HwangjeNaegyeong, Pricking blood therapy, pattern identification(辨證), Jangbu, Meridians and collaterals(血絡).

## I. 緒論

刺絡瀉血 치료법이란 주로 浮絡, 血絡 등에 응결되는 血脈을 刺鍼하여 瀉血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內經』에서는 침구치료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교신저자: 金度勳,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1) 750-5422, chulian@kyungwon.ac.kr

刺絡瀉血 치료법은 刺絡療法, 刺血絡法이라고도 한다. 血絡은 체표에 분포된 絡脈으로 주로 孫絡, 浮絡, 血絡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刺絡이란 적절한 鍼具를 사용해서 인체 淺表부위의 어떤 血絡을 깨뜨려 일정량의 혈액을 방출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것이다<sup>1)</sup>. 刺絡瀉血 치료법에 사용되는 鍼具는 역대로 砭石, 鋒鍼, 鈹鍼, 毫鍼 등이 쓰여 왔고, 후대에는 鋒鍼의 기초에서 진보되어 三稜鍼이 되었으며, 현재는 三稜鍼, 小眉刀, 皮膚鍼 등을 이용하여 그 임상응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체적 病情에 따라 點刺, 挑刺, 叢刺, 散刺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sup>2)</sup>.

刺絡瀉血 치료의 대상은 주로 단순히 타박 등 국소적인 瘀血을 없애는 목적으로 한 癱痺, 疼痛, 痺證의 실증에 주로 응용하여 開竅泄熱, 活血, 消腫 등의 작용이 있는 침자요법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본 『黃帝內經』의 刺絡瀉血 치료법은 이러한 목적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 經絡의 氣血 盛衰를 조절함으로써 안으로는 臟腑의 손상까지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즉, 각 經絡 및 臟腑 辨證에 의하여 해당 부위의 結絡을 찾아서 瀉血함으로써 치료의 범위를 매우 넓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黃帝內經』에서는 刺絡瀉血의 구체적 방법과 부작용 및 진단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임상에 刺絡瀉血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刺絡瀉血 치료법은, 현재의 단순한 刺出血 요법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臟腑經絡이론에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융합된 치료법으로 연구하고 임상적 활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이에 『黃帝內經』에서 刺絡瀉血 치료법의 관련 조문을, 刺絡療法의 이론적 근거, 구체적 방법, 임상 적용의 순서로 정리하고 고찰하였다.

1) 張登本, 白話通解黃帝內經. 西安,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p. 3154.  
2) 崔容泰 外, 鍼灸學 下. 서울, 集文堂, 1994. p. 1047.  
3) 崔容泰 外, 鍼灸學 下. 서울, 集文堂, 1994. p. 1046 -1048.

## II. 本 論

### 1. 血이 凝結되는 기전과 刺絡의 목적

#### 1) 血의 凝結

血은 원래 有形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막혀서 응결되기 쉽다. 따라서 血이 모여서 凝結되기 시작하면 결국 惡血이 되는데, 증상으로는 瘀血과 血熱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血이 聚結된 곳을 찾아 적절히 소통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① “定其血氣, 各守其鄉, 血實宜決之, 氣虛宜掣引之.” 『素問·陰陽應象大論』

- “血氣를 안정시켜 각기 제 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하니, 血이 實해지면 마땅히 터놓아 瀉해야 하고 氣가 虛해지면 마땅히 끌어당겨서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 2) 氣滯

“氣行則血行”의 원리에 의하여 氣行의 阻滯도 오래되면 血의 응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氣의 盛衰와 平衡失調에 따라 行氣가 되지 않으면 血의 凝結로 血絡이 드러나게 된다. 반대로 血絡이 드러나서 血이 외부로 응결된 것을 관찰하여 氣의 不通을 판단할 수 있으니 각 經絡이나 臟腑별로 진단에 응용할 수 있다.

① “一經上實下虛而不通者, 此必有橫絡盛加於大經, 令之不通, 視而瀉之, 此所謂解結也.” 『靈樞·刺節眞邪』

- “한 經脈이 위에서는 實하고 아래에서는 虛하여 통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가로막은 血絡이 치성하여 큰 經脈에 붙어있어 통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살펴서 瀉해야 하니, 이것이 이른바 묶인 것을 푼다는 것입니다.”

#### 3) 邪氣의 침입

邪氣가 외부에서 들어와 아직 皮膚 즉, 表部の

絡脈에 있을 경우에 凝結된다. 즉, 外邪가 침입하는 층차의 구조에 따라 絡脈은 피부에서 淺表부위에서 外邪가 먼저 응결되는 것이다. 이런 絡脈은 淺表部에 떠서 항상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피부에서 그 邪氣가 맺힌다.

① “經脈十二者，伏行分肉之間，深而不見……諸脈之浮而常見者，皆絡脈也。”『靈樞·經脈』

- “經脈 열두 개는 分肉의 속으로 가라앉아 지나가므로 깊숙하여 보이지 않습니다…여러 脈 중에서 떠서 항상 보이는 것은 모두 絡脈입니다.”

② “夫病之始生也，極微極精，必先入結於皮膚。”『素問·湯液醪醴論』

- “대저 병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변화가 극히 미세하고 극히 정밀하여 반드시 먼저 피부로 들어가 맺히게 됩니다.”

#### 4) 孫絡의 病變

絡脈, 孫絡 자체에 邪氣에 성하여 일시적으로 凝結되는 경우가 있다. 즉, 絡脈에 邪血이 凝聚되어 응결되거나 孫絡에 邪血이 盛해도 이를 찾아 瀉하여야 한다.

① “故諸刺絡脈者，必刺其結上甚血者。雖無結，急取之，以瀉其邪而出其血，留之發爲痺也。”『靈樞·經脈』

- “그러므로 絡脈을 刺할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그 맺힌 곳에 血이 많은 부분을 찔러야 하며, 비록 맺힌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급히 치료하여 邪氣를 瀉하기 위하여 피를 내야 하니, 오래 머무르게 하면 痺症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絡脈을 자침할 때 絡脈 상의 結聚된 부분을 刺鍼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모든 絡脈을 자침할 때에는 반드시 그 맺힌 곳 위를 찔러야 하니, 이는 血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sup>4)</sup>라고 하였고, 또

4) 張介賓, 類經, 經絡之辨刺診之法,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한 “만일 血이 結聚된 것이 너무 심하면, 맺힌 絡脈이 없더라도 급히 취하여 그 邪血을 제거하여야 한다”<sup>5)</sup>이라고 하였다. 이는 환부의 瘀血이 분명히 드러나기만 하면, 淺表부위의 絡脈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刺絡法을 이용하여 瀉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② “岐伯曰，孫絡之脈，別經者，其血盛而當瀉者，亦三百六十五脈，並注於絡。”『素問·氣穴論』

- “孫絡의 脈은 經脈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그 血이 성하면 마땅히 瀉해야 하는 것이니, 또한 삼백육십오 脈이 모두 絡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③ “足太陽根於至陰，溜於京骨，注於崑崙，入於天柱飛揚也。足少陽根於竅陰，溜於丘墟，注於陽輔，入於天容光明也。足陽明根於厲兌，溜於衝陽，注於下陵，入於人迎豐隆也。手太陽根於少澤，溜於陽谷，注於少海，入於天窗支正也。手少陽根於關衝，溜於陽池，注於支溝，入於天牖外關也。手陽明根於商陽，溜於合谷，注於陽谿，入於扶突，偏歷也。此所謂十二經者，盛絡皆當取之。”『靈樞·根結』

- “…이것이 이른바 十二經脈의 筋結이니 성한 絡脈이 있으면 모두 마땅히 이를 취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 5) 瘀血證

絡脈 속에서 血이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血脈을 제거하여 惡血을 내보내야 한다. 刺絡療法은 血絡 속의 惡血을 내보내기 위한 것으로, 活血祛瘀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sup>6)</sup>. 즉, 분명히 瘀血證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① “菀陳則除之者，出惡血也。”『素問·鍼解』

1978, p. 167.

“凡刺絡脈者，必刺其結上，此以血之所聚”

5) 張介賓, 類經, 經絡之辨刺診之法,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8, p. 167.

“若血聚已甚，雖無結絡，亦必急取之以去其邪血”

6)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中,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1438-1444.

- “血이鬱滯된 것이 오래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惡血을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6) 奇邪

奇邪의 경우에는 繆刺法을 사용한다. 奇邪는 邪氣가 皮毛에 침입하여 孫絡에 머물렀다가 經脈으로 들어가지 않고 大絡脈에 흘러 넘쳐 奇病을 일으키는 邪氣인데<sup>7)</sup>, 이것이 孫絡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血絡을 자락하는 이유는, 奇邪가 絡脈에 있어서이다. 奇邪<sup>8)</sup>가 혈락에 머물러 있는 外邪이기 때문에 刺血絡法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祛邪 위주의 치법으로, 임상에서 “邪氣盛則實”의 實證에 사용된다. 刺絡瀉血을 통해 울결된 기혈이 소통되고, 邪氣를 제거하여 氣血을 조리하고 陰陽이 평형을 이루어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이것이 실로 刺絡瀉血 요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기전이다.

① “帝曰, 其可治者奈何. 岐伯曰, 經病者治其經. 孫絡病者治其孫絡血. 血病身有痛者, 治其經絡. 其病者在奇邪, 奇邪之脈則繆刺之, 留瘦不移, 節而刺之. 上實下虛, 切而從之, 索其結絡脈, 刺出其血, 以見通之.”『素問·三部九候論』

- “...그 병이 奇邪로 인한 경우에는 奇邪가 있는 脈을 繆刺法으로 치료해야 하니, 머물러 몸을 수척하게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절도에 맞게 자침하여야 합니다. 위는 實하고 아래는 虛한 것은 눌러서 쫓아가 그 맺힌 絡脈을 찾아서 찔러 瘀血을 내어 통하게 해야 합니다.”

7) 金達鎬,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醫聖堂, 2000, p. 479.

8) 張登本, 白話通解黃帝內經, 西安,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p. 3156.

奇邪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大絡에 머물러 있는 邪氣인데, 여기서 말하는 ‘奇病’이란 바로 經脈이 폐색되어 통하지 않고, 外邪가 막혀서 經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어서 발생한 특별한 病變이란 것이다. 이러한 ‘奇病’을 발생시킬 수 있는 外邪가 바로 奇邪인 것이다. 둘째는 특수한 病邪인데, 靈樞·口問에서 “凡此十二邪者, 皆奇邪之走空竅者也.”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奇邪는 絡脈에 있으면서 經맥에 들어가지 않으며, 거처함에 정해진 곳이 없어서 일반적인 穴腔의 사기와 구별이 되는 것이다.

② “今邪客於皮毛, 入舍於孫絡, 留而不去, 閉塞不通, 不得入於經, 流溢於大絡, 而生奇病也.”『素問·繆刺論』

- “지금 邪氣가 皮毛에 침입하여 孫絡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떠나지 않으면, 폐색되어 통하지 않아 經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大絡에 흘러 넘쳐 기이한 병이 발생합니다.”

③ “凡刺之數, 先視其經脈, 切而從之, 審其虛實而調之, 不調者經刺之, 有痛而經不病者, 繆刺之. 因視其皮部有血絡者, 盡取之, 此繆刺之數也.”『素問·繆刺論』

- “무릇 침놓는 법은 먼저 그 經脈을 살펴서 부르면서 쫓아가 그 虛實을 살펴서 조절하고, 虛實을 조절하지 못하면 經脈에 침을 놓고, 통증은 있으나 經脈이 병들지 않은 경우에는 繆刺法으로 치료합니다. 그 피부에 血絡이 있는 것을 찾아서 모두 치료하니 이것이 繆刺法의 방법입니다.”

④ “黃帝曰, 余已知氣穴之處, 遊鍼之居, 願聞孫絡谿谷, 亦有所應乎. 岐伯曰, 孫絡三百六十五穴會, 亦以應一歲, 以溢奇邪, 以通榮衛, 榮衛稽留, 衛散榮溢, 氣竭血著, 外爲發熱, 內爲少氣. 疾瀉無怠, 以通榮衛, 見而瀉之, 無間所會. 帝曰: 善.”『素問·氣穴論』

- “孫絡 삼백육십오 穴의 만남은 또한 일 년의 변화에 응하니, 여기에 奇邪가 흘러 다니기도 하고 榮衛가 통하기도 합니다. 榮衛가 막혀서 머무르면 衛氣는 흩어지고 榮氣는 넘치니 氣가 고갈되고 血이 달라붙어 밖으로는 열이 나고 안으로는 기운이 부족해집니다. 게으르지 않게 빨리 瀉血하여 榮衛를 소통시켜야 하니 보이는 대로 瀉血하여 脈이 만나는 경로를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7) 氣血 조절의 선행 치료

經絡의 일반적 조절과 陰陽의 氣가 虛實의 평형을 얻기 위한 선행치료로 刺絡療法이 이용된다. 氣血이 고르게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瘀血이 있는 絡脈을 신속히 瀉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刺絡瀉血療法을 단지 瘀血證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氣血을 조절해야 하는 많은 그 밖의 질환 들에까지 응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① “必先度其形之肥瘦, 以調其氣之虛實, 實則瀉之, 虛則補之. 必先去其血脈而後調之, 無問其病, 以平爲期.” 『素問·三部九候論』

- “...반드시 먼저 그 血脈을 없앤 후에 虛實을 조절해야 하니, 어떠한 병이든 상관없이 고르게 만들 때까지 합니다.”

② “必無留血, 急取誅之.” 『靈樞·九鍼十二原』

- “반드시 남겨진 瘀血이 없도록 해야 하니, 급히 취하여 배어버려야 합니다.”

③ “肝病者……取其經, 厥陰與少陽, 氣逆, 則頭痛耳聾不聰頰腫, 取血者. 心病者……取其經, 少陰太陽, 舌下血者. 其變病, 刺郄中血者. 脾病者……取其經, 太陰陽明少陰血者. 肺病者……取其經, 太陰足太陽之外, 厥陰內血者. 腎病者……取其經, 少陰太陽血者.” 『素問·藏氣法時論』

- “肝病은…… 그 經絡을 치료하는데 厥陰經과 少陰經으로 하고 氣가 거스르면 머리가 아프고 귀가 멀어 밝지 못하고 뺨이 부으니 瀉血하여야 합니다. 心病은…… 그 經絡을 치료하는데 少陰經과 太陽經으로 하고 혀 아래의 血을 瀉합니다. 그 변한 病은 오금 중의 瘀血을 찌릅니다. 脾病은…… 그 經絡을 치료하는데 太陰經과 陽明經 및 少陰經의 血을 瀉합니다. 肺病은…… 그 經絡을 치료하는데 太陰經과 足太陽經의 밖과 厥陰經의 안쪽의 血을 瀉합니다. 腎病은…… 그 經絡을 치료하는데 少陰經과 太陽經의 血을 瀉합니다.”

이 경우에도 三陰三陽의 表裏 관계로 氣血을 조절하여 치료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부분을 瀉血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즉, 五臟病은 내부의 氣血陰陽의 성쇠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 외부의 經絡을 瀉血하여 내부의 편차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2. 刺絡瀉血(決之法)의 구체적 방법

### 1) 觸診

瀉血이 結聚되어 凝結된 곳을 자세히 손으로 더듬어 짚어 보고, 눈으로 관찰한 후에 실제 結絡된 부분을 瀉血하여야 한다. 瀉血하여 惡血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刺出血을 유도하며, 한편 惡血이 經脈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① “帝曰, 其可治者奈何. 岐伯曰, 經病者治其經. 孫絡病者治其孫絡血. 血病身有痛者, 治其經絡. 其病者在奇邪, 奇邪之脈則繆刺之, 留瘦不移, 節而刺之. 上實下虛, 切而從之, 索其結絡脈, 刺出其血, 以見通之.” 『素問·三部九候論』

- “...그 병이 奇邪로 인한 경우에 奇邪가 있는 脈을 繆刺法으로 치료해야 하니, 머물러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절도에 맞게 자침하여야 합니다. 위는 실하고 아래는 허한 것은 눌러서 쫓아가서 그 맺힌 絡脈을 찾아서 찢러 피를 내어 통하게 해야 합니다.”

② “解脈令人腰痛如引帶, 常如折腰狀, 善恐, 刺解脈在郄中結絡如黍米, 刺之血射以黑, 見赤血而已.” 『素問·刺腰痛』

- “(足太陽膀胱經의 別行脈인)解脈 중에서 오금 중에 맺힌 기장쌀과 같은 血絡을 찌르는데, 찢어서 검은색의 피를 쏘다가 붉은 피가 나타나면 그칩니다.”

③ “帝曰, 善. 血有餘不足, 奈何. 岐伯曰, 血有餘則怒, 不足則恐, 血氣未并, 五藏安定, 孫絡水溢, 則經有留血. 帝曰, 補瀉奈何. 岐伯曰, 血有餘則瀉其盛經出其血, 不足則視其虛經, 內鍼其脈中, 久留而視, 脈大, 疾出其鍼, 無令血泄. 帝曰, 刺留血, 奈何. 岐伯曰, 視其血絡, 刺出其血, 無令惡血得入於經, 以成其疾.” 『素問·調經論』

- “血이 有餘하면 그 성한 經脈을 찢러 피를 내고, 부족하면 그 허한 經脈을 찾아서 침을 맥 속에 들이고 오랫동안 놓아두고 살펴보면, 脈이 큰 경우에는 빨리 침을 빼서 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합니다...그 血絡을 찾아서 찢러 피를 내어, 惡血이 經脈으로 들어가 질병을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2) 色의 관찰

血色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각 血脈의 色을 통해, 邪血의 성질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미 刺絡한 邪血의 색 변화를 통해 刺絡의 정도를 정할 수 있다.

① “解脈令人腰痛如引帶, 常如折腰狀, 善恐, 刺解脈在郄中結絡如黍米, 刺之血射以黑, 見赤血而已.”『素問·刺腰痛』

- “찢어서 검은색의 피를 쏟다가 붉은 피가 나타나면 그칩니다.”

② “凡診絡脈, 脈色青, 則寒且痛, 赤則有熱. 胃中寒, 手魚之絡多青矣. 胃中有熱, 魚際絡赤. 其暴黑者, 留久痺也. 其有赤有黑有青者, 寒熱氣也. 其青短者, 少氣也.”『靈樞·經脈』

- “무릇 진단하여 絡脈의 색이 푸르면 寒邪로 인하여 아픈 것이며, 붉으면 열이 있는 것입니다. 胃中이 차면 손의 魚際의 絡脈에 푸른색이 많으며, 胃中에 열이 있으면 魚際의 絡脈이 붉습니다. 갑자기 검어지는 것은 邪氣가 머무른 것이 오래되어 痺症이 된 것입니다. 붉고 검고 푸른 것은 寒熱이 함께 있는 색이며 絡脈이 푸르면서 짧은 것은 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③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顏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 病雖未發, 見赤色者刺之, 名曰治未病.”『素問·刺熱』

- “肝熱病의 경우는 왼쪽 뺨이 먼저 빨개지며... 병이 비록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붉은 색을 보면 찢러 없애야 하니 이를 이름하여 ‘아직 병들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④ “診血脈者, 多赤多熱, 多青多痛, 多黑爲久痺. 多赤多黑多青皆見者, 寒熱身痛, 而色微黃, 齒垢黃,

爪甲上黃, 黃疸也.”『靈樞·論疾診尺』

- “血脈을 진단하여 붉은색이 많으면 열이 많으며, 푸른색이 많으면 통증이 많으며, 검은색이 많으면 오래된 痺症입니다. 붉은색과 검은색과 푸른색이 모두 많으면 寒熱이 있으면서 몸이 아프고, 얼굴색이 조금 누러면서 치아에 누런 때가 끼고 손톱 위가 누러면 黃疸입니다.”

3) 형태의 관찰

結絡의 양상을 살펴보면, 부풀어 오르고 딱딱하며 붉은 색을 띠기도 하며 經脈을 가로막는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絡脈이 소재한 것처럼 정해진 위치가 없다.

① “血脈者, 盛堅橫以赤, 上下無常處, 小者如鍼, 大者如筋, 則而瀉之萬全也.”『靈樞·血絡論』

- “血脈이 뭉친 것은 부풀어 올라 단단하게 經絡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붉고, 經絡 상 위아래로 정해진 곳이 없이 나타나며, 작은 것은 침 같고 큰 것은 힘줄만하니, 바로 瀉血하여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4) 부위의 관찰

血絡이 일어나는 부위를 관찰하여 우리 몸의 특정 經絡이나 臟腑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胃中寒, 手魚之絡多青矣. 胃中有熱, 魚際絡赤.”『靈樞·經脈』

- “胃中이 차면 손의 魚際의 絡脈에 푸른색이 많으며 胃中에 열이 있으면 魚際의 絡脈이 붉습니다.”

② “魚上白肉有青血脈者, 胃中有寒.”『靈樞·論疾診尺』

- “魚際 위의 肌肉 부분에 푸른 血脈이 있으면 胃中이 차가운 것입니다.”

5) 치료의 제한

지나치게 치료하지 말고 血絡이 제거되면 瀉血을 그쳐야 한다. 과도한 출혈을 방지하는 것이다. 지나친 瀉血으로 기운을 잃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를 건너뛰고 刺絡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① “凡刺寒熱者，皆多血絡，必間日而一取之，血盡而止，乃調其虛實。”『靈樞·經脈』

- “寒熱病을 刺鍼할 때에는 대개 血絡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하루를 건너뛰고 치료하되 血絡이 없어지면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그 虛實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② “凡刺之理，經脈爲始，營其所行，知其度量，內刺五藏，外刺六府，審察衛氣，爲百病母，調其虛實，虛實乃止，瀉其血絡，血盡不殆矣。”『靈樞·禁服』

- “...그 虛實을 조절하여 虛實이 안정되면 이내 그쳐야 하고, 그 血絡을 瀉하여 모두 없애버리되 위태롭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久病者，邪氣入深。刺此病者，深內而久留之，間日而復刺之，必先調其左右，去其血脈，刺道畢矣。”『靈樞·終始』

- “오래된 病은 邪氣가 깊이 들어가니 이러한 病을 刺鍼할 때에는 침을 깊이 넣고 오래 놓아두되, 하루를 건너 다시 刺鍼하는데, 반드시 먼저 그 左右를 조절하여 血脈을 제거해야 치료가 다 끝납니다.”

④ “與刺之要，發鍼而淺出血。”『素問·長刺節論』

- “침을 놓는 요점은 침을 놓고 나서 가볍게 피를 내는 것입니다.”

### 3. 刺絡瀉血에 사용하는 鍼

역대로 자락요법에 쓰인 도구는 砭石, 鋒鍼, 鑱鍼, 鈹鍼, 毫鍼 등이 있었는데, 현대에는 鋒鍼의 기초에서 三稜鍼을 만들게 되었고, 刺絡方法도 다양해져서 임상 응용이 확대되었다<sup>9)</sup>.

9) 현재 三稜鍼을 이용한 刺絡法은 주로 點刺, 散刺, 瀉血法

① “四者，時也。時者，四時八風之客於經絡之中，爲癰病者也，故爲之治鍼，必箝其身而鋒其末，令可以瀉熱出血，而癰病竭。”『靈樞·九鍼論』

- “네 번째는 때의 변화에 응하는 것이니, 때의 변화란 四時八風이 經絡 속으로 들어와서 머물러 고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몸체는 원통과 같고 그 끝은 칼끝처럼 날카로운 침을 써야만 熱氣를 瀉하고 피를 내어서 고질병을 없앨 수 있습니다.”

② “四曰鋒鍼，取法於絮鍼，箝其身鋒其末，長一寸六分，主癰熱出血。”『靈樞·九鍼論』

- “네 번째는 鋒鍼이라 하니, 사용법이 絮鍼과 같고 몸체는 통과 같으면서 그 끝은 칼끝과 같고 길이는 1촌6푼으로 뭉친 얼을 없애며 피를 내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 4. 刺絡瀉血 후의 상태

刺絡瀉血 후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는 異常 반응, 副作用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正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첫째, 刺血絡의 반응이 환자의 體質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둘째, 음식을 섭취한 것과 유관하며, 셋째, 疾病의 특성과도 관련되고, 넷째, 鍼의 조작 수법과 관련되기 때문<sup>10)</sup>이다. 아래에서 열거하는 내용들은 이상에서 제시한 원인이 하나, 혹은 여럿이 겹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반응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구체적 병정을 잘 살피고, 血絡의 부위와 형태를 세밀히 관찰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 1) 顔色으로 본 이상 반응

등의 세 종류가 있다.(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中,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1444.) 다만, 앞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點刺, 挑刺, 叢刺, 散刺 등의 넷으로 구분하고 있다.(崔容泰 外, 鍼灸學 下, 서울, 集文堂, 1994, p. 1047.)

10) 張登本, 白話通解黃帝內經, 西安,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p. 3151-3153.

① 순간적인 졸도, 즉 昏厥이 발생하는 경우

“脈氣盛而血虛者，刺之則脫氣，脫氣則仆。”『素問·血絡論』

- “脈氣는 치성한데 血이 허한 경우에는 刺鍼하면 氣가 빠져나가 버리고 氣가 빠져나가면 쓰러집니다.”

② 안색이 창백하게 되는 경우

“陰陽之氣，其新相得而未和合，因而瀉之，則陰陽俱脫，表裏相離，故脫色而蒼蒼然。”『素問·血絡論』

- “陰陽의 氣가 새롭게 만나 아직 화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瀉血하면, 陰陽의 氣가 모두 빠져나가 表裏가 서로 분리됩니다. 그러므로 얼굴색이 사라지면서 푸른 기운이 돌게 됩니다.”

③ 안색은 그대로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

“刺之血出多，色不變而煩惋者，刺絡而虛經，虛經之屬於陰者，陰脫故煩惋。”『素問·血絡論』

- “刺鍼하여 피를 많이 냈는데 얼굴색이 변하지는 않으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는, 絡脈을 찌러 經脈까지 허해졌는데 그 經脈이 陰分에 속해 있어서 陰氣가 빠져나가게 되므로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2) 出血의 양상

① 피가 치솟는 경우, 즉 射血이 되는 경우

“血氣俱盛而陰氣多者，其血滑，刺之則射。”『素問·血絡論』

- “血氣가 모두 성하면서 陰氣가 많은 경우에는 그 血이 滑利하여 刺鍼하면 치솟아 뿜어 나옵니다.”

② 피가 검고 濁한 경우

“陽氣畜積，久留而不瀉者，其血黑以濁，故不能射。”『素問·血絡論』

- “陽氣가 쌓여 오래도록 머물러 퍼지지 않으면 그 피가 검으면서 탁하니, 刺鍼하면 치솟아 나오지 않습니다.”

③ 피가 묽은 경우

“新飲而液滲於絡，而未合和於血也，故血出而汁別焉。其不新飲者，身中有水，久則爲腫。”『素問·血絡論』

- “물을 마신지 얼마되지 않아 水液이 絡脈까지는 스며들었으나 아직 血로 변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가 나오면서 汁이 따로 나옵니다. 금방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몸 속에 水氣가 운행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것이니, 오래되면 붓습니다.”

④ 瀉血한 자리가 붓는 경우

“陰氣積於陽，其氣因於絡，故刺之血未出而氣先行，故腫。”『素問·血絡論』

- “陰氣가 몸의 陽分에 쌓여있다가 그 氣가 絡脈으로 드러난 것이니 刺鍼하여 피가 채 나오기도 전에 氣가 먼저 행하므로 그 자리가 붓게 됩니다.”

3) 기타 출혈 반응

① 출혈이 많아도 동요함이 없는 경우

“陰陽相得而合爲痺者，此爲內溢於經，外注於絡。如是者，陰陽俱有餘，雖多出血而弗能虛也。”『素問·血絡論』

- “陰陽의 氣가 서로 만나 합해서 痺症이 된 경우는 안으로는 氣가 經脈으로 넘치고 밖으로는 絡脈으로 흘러들게 되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陰陽이 모두 有餘하여 비록 出血이 많다 하더라도 허해지지 않습니다.”

5. 刺法 중의 刺絡法

刺法 중에서 刺絡法과 관련하여 絡刺, 贊刺, 豹文刺 등의 방법과 연관지을 수 있다<sup>11)</sup>. 물론, 현재 쓰이는 三稜鍼만으로 시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刺鍼의 의도가 刺絡法과 관련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五刺法 중 豹文刺

① “二曰豹文刺，豹文刺者，左右前後鍼之，中脈

11) 崔容泰 外, 鍼灸學 下, 서울, 集文堂, 1994, p. 1046.



爲故, 以取經絡之血者, 此心之應也.”『靈樞·官鍼』

- “두 번째는 豹文刺라고 하니, 좌우전후에서 침을 놓아서 脈에 적중시킴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로써 經絡의 瘀血을 취합니다. 이 刺法은心に 대응되는 것입니다.”

### 2) 九刺法 중 經刺와 絡刺

① “三曰經刺, 經刺者, 刺大經之結絡經分也. 四曰絡刺, 絡刺者, 刺小絡之血脈也.”『靈樞·官鍼』

- “세 번째는 經刺라고 하니 經刺는 큰 經絡의 맺힌 絡脈의 부분을 刺鍼하고, 네 번째는 絡刺라고 하니 絡刺는 작은 絡脈의 뭉친 血脈을 刺鍼합니다.”

### 3) 十二刺法 중 贊刺

① “十二曰贊刺, 贊刺者, 直入直出, 數發鍼而淺之出血, 是謂治癰腫也.”『靈樞·官鍼』

- “열두 번째는 贊刺라고 하니 贊刺는 똑바로 넣고 똑바로 빼서, 자주 침을 발침하여 얇게 피를 내는 것이니, 이는 癰腫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 6. 經絡과 臟腑의 치료에 쓰이는 刺絡瀉血 요법

刺絡瀉血 요법은 『黃帝內經』에서 經絡에 따라, 臟腑에 따라 그 異常部位를 치료하는 수단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현재는 局所部位의 치료요법으로 채택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하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刺絡瀉血 치료법 적용 시에 더욱 經絡과 臟腑에 소속되는 辨證이 필요하다.

### 1) 三焦手少陽病

다음에서는 表裏관계의 足太陽經의 大絡을 刺絡할 것을 제시하였다.

① “小腹痛腫, 不得小便, 邪在三焦約, 取之太陽大絡, 視其絡脈與厥陰小絡結而血者, 腫上及胃脘, 取三里.”『靈樞·四時氣』

- “아랫배가 아프며 붓고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은 邪氣가 三焦가 묶는데 있는 것이니, 太陽經

의 大絡을 刺鍼합니다. 그 絡脈과 厥陰經의 작은 絡脈이 맺혀서 혈이 모인 것을 살펴야 하며 붓는 것이 위로 胃脘 부위까지 미치면 足三里를 刺鍼합니다.”

### 2) 膽足少陽病

① “善嘔, 嘔有苦, 長太息, 心中憺憺, 恐人將捕之, 邪在膽, 逆在胃, 膽液泄則口苦, 胃氣逆則嘔苦, 故曰嘔膽. 取三里以下, 胃氣逆, 則刺少陽血絡, 以閉膽逆, 却調其虛實, 以去其邪.”『靈樞·四時氣』

- “구역질을 자주하며 쓴물을 토하고 길게 한숨을 쉬며, 가슴 속이 울렁거려 다른 사람이 붙잡으려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邪氣가 膽에 있는 것입니다. 胃氣가 거슬러 오르게 되어 膽液이 흘러나와 입이 쓰고 胃氣가 거슬러 올라 쓴물을 토합니다. 그러므로 區膽이라고 합니다. 足三里의 아래 부위를 刺鍼하는데 胃氣가 거스르면 少陽經의 血絡을 찢어서 膽氣의 逆上을 가로막고 한편으로 虛實을 조절하여 邪氣를 몰아냅니다.”

② “少陽令人腰痛, 如以鍼刺其皮中, 循循然不可以俛仰, 不可以顧; 刺少陽成骨之端出血.”『素問·刺腰痛』

- “少陽經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픈데, 침으로 피부 속을 찌르듯이 아프며, 점차로 허리를 구부리고 펴거나 뒤돌아 볼 수 없으면 少陽經의 成骨 말단의 梁關穴 부위를 刺絡하여 피를 냅니다.”

### 3) 腎足少陰病

① “少氣, 身漯漯也, 言吸吸也, 骨痠體重, 懈惰不能動, 補足少陰. 短氣息短不屬, 動作氣索. 補足少陰, 去血絡也.”『靈樞·癲狂』

- “기운이 없고 몸이 찌뿌둥하며 말을 짧게 하고 뼈가 시리면서, 몸이 무거워 늘어져 움직이지 못할 때는 足少陰經을 補합니다. 숨이 짧아서 이어지지 못하고 움직일 때 기운이 빠지면 足少陰經을 補하되 血絡을 제거합니다.”

② “足少陰令人腰痛, 痛引脊內廉. 刺少陰於內踝

上二病，春無見血，出血太多，不可復也。”『素問·刺腰痛』

- “足少陰經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면 통증이 등뼈 안쪽까지 당기니, 少陰經의 內踝上 두 군대를 刺鍼하되 봄에는 피를 내서는 안 되니 출혈이 많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③ “中熱而喘，刺足少陰，刺郄中出血。”『素問·刺腰痛』

- “속이 열이 있고 숨을 헐떡거리면 足少陰經을 刺鍼하며 郄中穴인 오금 부위를 찔러 피를 냅니다.”

④ “帝曰，願聞繆刺奈何。取之何如。岐伯曰，邪客於足少陰之絡，令人卒心痛，暴脹，胸脇支滿，無積者，刺然骨之前出血，如食頃而已，不已，左取右。右取左，病新發者，取五日已。”『素問·繆刺論』

- “邪氣가 足少陰의 絡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가슴이 아프고 갑자기 배가 부풀어 오르며 가슴과 옆구리가 치받으면서 그득하게 됩니다. 積聚가 없는 경우에는, 軟骨의 앞부분을 찔러 피를 내면 얼마 후에 나올 것입니다.”

⑤ “足之少陰，上繫於舌，絡於橫骨，終於會厭。兩瀉其血脈，濁氣乃辟。”『靈樞·憂悲無言』

- “足少陰의 脈은 舌本에 매어 있고 橫骨에 닿아 있으며 會厭에서 끝나니, 두 부위에서 그 血脈을 瀉하면 濁氣가 이내 물러갈 것입니다.”

4) 膀胱足太陽病

① “風瘧身反折，先取足太陽及臑中及血絡出血，中有寒，取三里。”『靈樞·熱病』

- “風瘧證으로 몸이 뒤로 꺾어질 때는, 먼저 足太陽經과 오금 및 보이는 血絡들을 刺鍼하여 피를 냅니다. 속이 차가우면 足三里를 (함께) 刺鍼합니다.”

② “厥挾脊而痛，至頂，頭沉沉然，目眈眈然，腰脊強，取足太陽臑中血絡。”『靈樞·雜病』

- “厥症으로 등뼈를 끼고서 아프며 머리 위까지 이르러, 머리가 침침하고 눈이 잘 안보이며 허리와 등이 뻣뻣해지는 경우에는 足太陽經의 오금 가운데의 血絡을 刺鍼합니다.”

③ “足太陽之瘧，令人腰痛頭重，寒從背起，先寒後熱，熇熇喝喝然，熱止汗出，難已，刺郄中出血。”『素問·刺瘧』

- “足太陽經의 瘧疾로서 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무거우며, 寒氣가 등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먼저 惡寒이 있다가 나중에는 熱이 나서 화끈화끈하며 헉헉거리게 하는 경우에는 낮기는 어렵지만, 오금 가운데를 찔러 출혈시킵니다.”

④ “足太陽脈，令人腰痛，引項脊背如重狀。刺其郄中太陽正經出血，春無見血。”『素問·刺腰痛』

- “足太陽脈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고 목뒤와 등뼈와 콩무늬와 등이 모두 당기면서 무거운 상태인 경우, 환자의 오금 가운데 太陽의 正經을 찔러 피를 내되, 봄에는 피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⑤ “腰痛俠脊而痛至頭几几然，目眈眈欲僵仆；刺足太陽郄中出血。”『素問·刺腰痛』

- “허리가 아픈 것이 등뼈를 끼고 나타나다가 머리까지 이르러 뻣뻣해지며, 눈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쓰러지려고 하면, 足太陽經의 오금 가운데를 찔러 피를 냅니다.”

5) 陽明病

① “顛痛，刺手陽明，與顛之盛脈出血。”『靈樞·雜病』

- “턱이 아플 경우에는 手陽明經과 함께 턱의 盛脈을 자침하여 피를 냅니다.”

② “陽明令人腰痛，不可以顧，顧如有見者，善悲；刺陽明於臑前三病，上下和之出血。”『素問·刺腰痛』

- “陽明經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파서 돌아보지 못하고, 돌아보면 마치 헛것을 본 것 같으면서 잘 슬피하는 경우, 정강이 앞의 陽明經 위의 세 혈을

자침하여 上下가 조화를 이루도록 피를 냅니다.”

6) 肝病

① “肝癰者, 令人色蒼蒼然太息, 其狀若死者, 刺足厥陰見血.” 『素問·刺癰』

- “肝癰의 경우 사람의 얼굴색이 창백하게 푸르며 한숨을 쉬는데, 그 모양이 마치 죽은 것 같으면, 足厥陰經을 刺鍼하여 피를 냅니다.”

② “邪在肝, 則兩脇中痛, 寒中, 惡血在內, 行善掣筋, 時脚腫. 取之行間, 以引脇下, 補三里以溫胃中, 取血脈以散惡血, 取耳間青脈, 以去其掣.” 『靈樞·五邪』

- “邪氣가 肝에 있으면 양 옆구리 속이 아프며 속이 차가운데, 惡血이 속에 있어서 걸을 때마다 관절이 당기며 때때로 다리가 부으니, 行間을 刺鍼합니다. 옆구리 아래까지 당기면 足三里를 보하여 胃中을 따뜻하게 하며, 血脈을 刺鍼하여 惡血을 흘려 버리고, 귀 부근의 靑脈을 刺鍼하여 그 당기는 것을 없앱니다.”

7) 肺病

① “肺熱病者, 先淅然厥, 起毫毛惡風寒, 舌上黃身熱. 熱爭則喘欬, 痛走胸膺背, 不得大息, 頭痛不堪, 汗出而寒, 丙丁甚, 庚辛大汗, 氣逆則丙丁死, 刺手太陰陽明, 出血如大豆, 立已.” 『素問·刺熱』

- “肺熱病은…手太陰經과 手陽明經을 刺鍼하여 콩알만큼 피를 내면 즉시 나을 것입니다.”

8) 腎病

① “邪在腎, 則病骨痛, 陰痺. 陰痺者, 按之而不得, 腹脹, 腰痛, 大便難, 肩背頸項痛, 時眩. 取之湧泉, 崑崙. 視有血者, 盡取之.” 『靈樞·五邪』

- “邪氣가 腎에 있으면 뼈가 아프며 陰痺가 생기니 陰痺는 눌러서는 찾지 못합니다. 배가 부르고 허리가 아프며 대변을 보기가 어렵고, 어깨와 등과 목이 아프고 때때로 눈이 아질한 경우에는, 湧泉과 崑崙을 자침하는데, 혈이 멩친 자리를 살펴서 다 취하여 없앱니다.”

9) 胃病

① “胃癰者, 令人且病也, 善飢而不能食, 食而支滿腹大, 刺足陽明太陰橫脈出血.” 『素問·刺癰』

- “胃癰病은 사람이 장차 병을 앓게 되는 것이, 배가 쉽게 고프지만 잘 먹지는 못하고, 먹어도 속이 치받으면서 그득하며 배가 불러지니, 足陽明經과 足太陰經의 막힌 脈을 刺鍼하여 피를 냅니다.”

7. 病症에 따른 刺絡瀉血 치료법

각 病症은 經絡이나 臟腑와 연관되는 부위가 있으면 또한 그 해당 經絡이나 臟腑, 혹은 표리관계에 있는 臟腑나 經絡을 刺絡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많은 부분이 역시 經絡, 臟腑에 따른 辨證이 필요한 치료법이 되는 것이다.

1) 痺

① “黃帝曰, 刺其諸陰陽, 奈何. 岐伯曰: 按其寸口人迎, 以調陰陽, 切循其經絡之凝滯, 結而不通者, 此於身皆爲痛痺, 甚則不行, 故凝滯. 凝滯者, 致氣以溫之, 血和乃止. 其結絡者, 脈結血不和, 決之乃行.” 『靈樞·陰陽二十五人』

- “...영겨서 걸끄러워진 것은 氣를 통하여 따뜻하게 하여 血이 충실해져야만 없어집니다. 絡脈이 응결된 것은 脈이 맺혀서 血이 조화를 잃은 것이니, 터주어야만 통하게 됩니다.”

② 痺症의 예방을 위한 경우

“故諸刺絡脈者, 必刺其結上甚血者. 雖無結, 急取之, 以瀉其邪而出其血, 留之發爲痺也.” 『靈樞·經脈』

- “그러므로 絡脈을 刺할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그 맺힌 곳에 血이 많은 부분을 찔러야 하며, 비록 맺힌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급히 치료하여 邪氣를 瀉하기 위하여 피를 내야 하니, 오래 머무르게 하면 痺症을 발하게 됩니다.”

③ “帝曰, 善. 余已得其意矣. 此內不在藏, 而外未發於皮, 獨居分肉之間, 眞氣不能周, 故命曰周痺. 故刺痺者, 必先切循其下之六經, 視其虛實, 及大絡之血結而不通, 及虛而脈陷空者, 而調之, 熨而通之, 其

瘰癧，轉引而行之。”『靈樞·周痺』

- “...그러므로 痺症을 자침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속의 六經을 눌러 더듬어서, 虛實과 大絡의 血이 맺혀서 통하지 않는 것 및 虛하여 脈이 꺼지고 빈 것 등을 살펴서 조절하고, 熨法으로 통하게 해야 합니다.”

④ “氣在於臂足，取之先去血脈，後取其陽明少陽之榮輸。”『靈樞·五亂』

- “氣가 팔다리에 있으면 刺鍼할 때 먼저 뭉친 血脈을 없애고, 뒤에 그 陽明經과 少陽經의 榮輸를 刺鍼합니다.”

⑤ 痺症이 오래된 경우

“久痺不去身者，視其血絡，盡出其血。”『靈樞·壽夭剛柔』

- “오래된 痺症이 몸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血絡을 살펴서 그 피를 모두 빼냅니다.”

## 2) 腰痛

腰痛은 腰部에 걸쳐있는 足太陽經을 자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表裏관계의 足少陰經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① “腰痛，痛上寒，取足太陽陽明，痛上熱，取足厥陰，不可以俛仰，取足少陽。中熱而喘，取足少陰臑中血絡。”『靈樞·雜病』

- “腰痛으로...속에 熱이 있으면서 혈떡거리면 足少陰經과 오금 가운데의 血絡을 刺鍼합니다.”

② “足太陽脈，令人腰痛，引項脊背如重狀；刺其郛中太陽正經出血，春無見血。”『素問·刺腰痛』

- “足太陽脈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고 목뒤와 등뼈와 콩무늬와 등이 모두 당기면서 무거운 모양일 때는, 그 오금 가운데의 太陽의 正經을 찔러 피를 내되 봄에는 피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③ “少陽令人腰痛，如以鍼刺其皮中，循循然不可以俛仰，不可以顧。刺少陽成骨之端出血”『素問·刺腰痛』

痛:

- “少陽經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픈데, 침으로 피부 속을 찌르듯이 아프며, 점차로 허리를 구부리고 퍼거나 뒤돌아 볼 수 없으면 少陽經의 成骨 말단의 梁關穴 부위를 刺絡하여 피를 냅니다.”

④ “陽明令人腰痛，不可以顧，顧如有見者，善悲。刺陽明於筋前三痛，上下和之出血。”『素問·刺腰痛』

- “陽明經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파서 돌아보지 못하고, 돌아보면 마치 헛것을 본 것 같으면서 잘 슬피하는 경우, 경강이 앞의 陽明經 위의 세 혈을 자침하여 上下가 조화를 이루도록 피를 냅니다.”

⑤ “足少陰令人腰痛，痛引脊內廉；刺少陰於內踝上二痛，春無見血，出血太多，不可復也。”『素問·刺腰痛』

- “足少陰經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면 통증이 등뼈 안쪽까지 당기니, 少陰經의 內踝上 두 군데를 刺鍼하되 봄에는 피를 내서는 안되니 출혈이 많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⑥ “解脈令人腰痛，痛引肩，目眈眈然，時遺洩；刺解脈，在膝筋肉分間，郛外廉之橫脈出血，血變而止。解脈令人腰痛如引帶，常如折腰狀，善恐，刺解脈在郛中結絡如黍米，刺之血射以黑，見赤血而已。”『素問·刺腰痛』

- “(足太陽膀胱經의 別行脈인) 解脈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면서 통증이 어깨까지 당기고, 눈앞이 보이지 않고 때때로 소변을 흘리는 경우, 解脈 중에서 무릎의 筋肉 부위와 오금 바깥쪽의 가로지른 脈을 刺鍼하여 피를 내는데 血色이 변하면 그칩니다. 解脈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면서 허리띠가 조이거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며 잘 두려워하나, 解脈 중에서 오금 중에 맺힌 기장살과 같은 血絡을 찌르는데, 찔러서 검은색의 피를 쏘아내다가 붉은 피가 나타나면 그칩니다.”

⑦ “衡絡之脈，令人腰痛，不可以俛仰，仰則恐仆，得之舉重傷腰，衡絡絕，惡血歸之；刺之在郛陽筋之

間, 上郄數寸, 衡居爲二疔出血.”『素問·刺腰痛』

- “衡絡의 脈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면 구부리거나 펴 수 없으며 피면 곧 쓰러질 것만 같으니, 이는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상하여 衡絡이 끊어져 나뻐 피가 물린 것입니다. 오금의 바깥쪽 筋 부근과 오금에서 위로 몇 寸 올라가 가로놓인 두 개의 혈자리를 刺鍼하여 피를 냅니다.”

⑧ “會陰之脈, 令人腰痛, 痛上漑漑然汗出, 汗乾令人欲飲, 飲已欲走, 刺直陽之脈上三疔, 在臍上郄下五寸橫居, 視其盛者出血.”『素問·刺腰痛』

- “會陰의 脈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면 통증 위로 끈적끈적하게 땀이 나며, 땀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어지고 물을 마시고 나면 내달리고 싶어지니, 直陽脈 위의 세 혈자리로, 陽蹻脈 위와 오금 아래 5寸에 가로놓인 곳의 충혈되어 뭉친 곳을 살피 刺鍼하여 피를 빼냅니다.”

⑨ “腰痛俠脊而痛至頭几几然, 目眈眈欲僵仆; 刺足太陽郄中出血.”『素問·刺腰痛』

- “허리가 아픈 것이 등뼈를 끼고 나타나다가 머리까지 이르러 뻗뻗해지며, 눈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쓰러지려고 하면 足太陽經의 오금 가운데를 찔러 피를 냅니다.”

⑩ “中熱而喘, 刺足少陰, 刺郄中出血.”『素問·刺腰痛』

- “속이 열이 있고 숨을 헐떡거리면 足少陰經을 刺鍼하며 오금 부위를 찔러 피를 냅니다.”

### 3) 寒熱

① “凡刺寒熱者, 皆多血絡, 必間日而一取之, 血盡而止, 乃調其虛實.”『靈樞·經脈』

- “寒熱病을 刺鍼할 때에는 대개 血絡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하루를 건너 뛰어서 치료하되 血絡이 없어지면 그만두어야 하니, 그리고 나서야 그 虛實을 조절합니다.”

② “溫瘧汗不出, 爲五十九疔. 風疥膚脹, 爲五十

七疔, 取皮膚之血者, 盡取之.”『靈樞·四時』

- “溫瘧으로 땀이 나지 않으면 五十九刺法을 하고, 風疥로 피부가 부으면 五十七刺法을 하여, 피부의 뭉친 血을 刺鍼하여 모두 없앱니다.”

### 4) 五臟熱病

五臟의 연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잘 살펴서 刺絡하고, 아울러 刺絡療法이 미리 병을 방지하는 작용이 있음을 설명한다.

① “肺熱病者, 先淅然厥, 起毫毛惡風寒, 舌上黃身熱. 熱爭則喘欬, 痛走胸膺背, 不得大息, 頭痛不堪, 汗出而寒, 丙丁甚, 庚辛大汗, 氣逆則丙丁死, 刺手太陰陽明, 出血如大豆, 立已.”『素問·刺熱』

- “肺熱病의 경우에는…手太陰經과 手陽明經을 刺鍼하여 콩알만큼 피를 내면 바로 낫습니다.”

②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顏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 病雖未發, 見赤色者刺之, 名曰治未病.”『素問·刺熱』

- “肝熱病의 경우는 왼쪽 뺨이 먼저 빨개지며, 心熱病의 경우에는 이마가 먼저 빨개지며, 脾熱病의 경우에는 코가 먼저 빨개지며, 肺熱病의 경우에는 오른쪽 뺨이 먼저 빨개지며, 腎熱病의 경우에는 턱이 먼저 빨개지니, 병이 비록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붉은 색을 보면 찔러 없애야 합니다. 이를 이름하여 아직 병들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 5) 瘧

학질 역시 五臟과 연관되는 경우 유관한 五臟과 經絡을 치료한다.

① “瘧之且發也, 陰陽之且移也, 必從四末始也. 陽已傷, 陰從之, 故先其時堅束其處, 令邪氣不得入, 陰氣不得出, 審候見之, 在孫絡盛堅而血者, 皆取之, 此眞往而未得并者也.”『素問·瘧論』

- “瘧疾이 막 발생하여 陰陽의 氣가 서로 옮겨갈 때, 반드시 四肢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陽氣가 이미 상하고 나서 陰氣가 따르니, 먼저 그 때

邪氣가 있는 곳을 단단히 묶어 邪氣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陰氣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서 孫絡이 부풀어 올라 단단 하면서 血이 멎은 것을 모두 刺鍼해야 하니. 이는 眞氣가 가서 아직 아우르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② “瘡脈滿大急, 刺背俞, 用中鍼傍五法俞各一, 適肥瘦, 出其血也. 瘡脈小實急, 灸脛少陰, 刺指井. 瘡脈滿大急, 刺背俞, 用五法俞背俞各一, 適行至於血也. 瘡脈緩大虛, 便宜用藥, 不宜用鍼. 凡治瘡, 先發如食頃, 乃可以治, 過之則失時也. 諸瘡而脈不見, 刺十指間出血, 血去必已. 先視身之赤如小豆者, 盡取之.” 『素問·刺瘡』

- “瘡疾에 脈이 그득하면서 매우 급하면 背俞穴을 刺鍼하는데, 양 옆의 五法俞에 각각 침을 놓아 환자의 肥瘦에 맞추어 피를 빼냅니다...瘡疾에 脈이 그득하면서 매우 급하면 五法俞와 背俞穴을 刺鍼하는데 적절히 피를 낼 때까지 합니다...모든 瘡疾에서 脈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 손가락 사이를 刺鍼하여 피를 빼내니 피를 빼내면 반드시 낫습니다. 먼저 몸에서 팔처럼 붉은 것이 멎어 있으면 모두 瀉血해야 합니다.”

③ “肝瘡者, 令人色蒼然太息, 其狀若死者. 刺足厥陰見血.” 『素問·刺瘡』

- “肝瘡의 경우에는 사람이 얼굴색이 창백하게 푸르스름하며 크게 한숨을 쉬고, 그 모양이 마치 죽은 사람 같으니 足厥陰經을 刺鍼하여 피를 빼냅니다.”

④ “胃瘡者, 令人且病也, 善飢而不能食, 食而支滿腹大, 刺足陽明太陰橫脈出血.” 『素問·刺瘡』

- “胃瘡病은 사람이 장차 병을 앓게 될 때, 쉽게 배가 고프나 잘 먹지 못하고, 먹으면 속이 차반으면서 그득하며 배가 불러집니다. 足陽明經과 足太陰經의 막힌 脈을 刺鍼하여 피를 빼냅니다.”

⑤ “十二瘡者, 其發各不同時, 察其病形, 以知其何脈之病也. 先其發時, 如食頃而刺之, 一刺則衰, 二

刺則知, 三刺則已, 不已, 刺舌下兩脈出血, 不已, 刺郄中盛經出血, 又刺項已下俠脊者必已. 舌下兩脈者, 廉泉也.” 『素問·刺瘡』

- “十二經의 瘡疾은 그 발작하는 때가 같지 않으니, 그 모양을 잘 살펴서 어느 脈의 병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발작하기에 한 食頃 쯤 먼저 刺鍼하는데, 한 번 刺鍼하면 병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두 번째 刺鍼하면 치료가 됨을 알고, 세 번째 刺鍼하면 낫게 됩니다. 낫지 않으면 허 밑의 양 脈을 刺鍼하여 피를 빼내고, 또 낫지 않으면 오금 가운데 성한 經絡을 刺鍼하여 피를 빼내고, 또 뒷목 아래로 등뼈의 옆을 刺鍼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허 밑의 양 脈은 廉泉穴입니다.”

⑥ “刺瘡者, 必先問其病之所先發者, 先刺之. 先頭痛及重者, 先刺頭上及兩額兩眉間出血, 先項背痛者, 先刺之. 先腰脊痛者, 先刺郄中出血, 先手臂痛者, 先刺手少陰陽明十指間, 先足脛痠痛者, 先刺足陽明十指間出血...筋痠痛甚按之不可. 名曰附髓病, 以鑱鍼, 鑱絕骨出血, 立已.” 『素問·刺瘡』

- “瘡疾을 자침할 때...먼저 머리가 아프다가 무거워지는 경우는 먼저 머리 위와 양 이마와 양 눈썹 사이를 刺鍼하여 피를 빼냅니다...먼저 허리와 등뼈가 아픈 경우는 먼저 오금 가운데를 刺鍼하여 피를 빼냅니다. 먼저 손과 팔뚝이 아픈 경우는 먼저 手少陰經과 手陽明經과 열 손가락 가운데를 刺鍼하고, 먼저 다리와 정강이와 시리고 아픈 경우는 먼저 足陽明經과 열 발가락 가운데를 刺鍼하여 피를 빼냅니다 ..... 정강이가 시리고 아파서 누르지도 못하는 경우를 이음하여 附髓病이라 하니, 鑱鍼으로 絕骨에 鍼을 놓아서 피를 내면 곧 낫습니다.”

### 6) 癲狂

① “少氣, 身潔潔也, 言吸吸也, 骨瘦體重, 懈惰不能動, 補足少陰. 短氣息短不屬, 動作氣索, 補足少陰, 去血絡也.” 『靈樞·癲狂』

- “기운이 없고 몸이 찌뿌둥하며 말을 짧게 하고 뼈가 시리면서, 몸이 무거워 늘어져 움직이지

못할 때는 足少陰經을 補합니다. 숨이 짧아서 이어지지 못하고 움직일 때 기운이 빠지면 足少陰經을 補하되 血絡을 제거합니다.”

② “脈癰疾者, 暴仆, 四肢之脈, 皆脹而縱, 脈滿, 盡刺之出血.” 『靈樞·癰狂』

- “脈病으로 인한 癰疾의 경우에는 갑자기 쓰러지며, 四肢의 脈이 모두 부풀어 올라 늘어지고 脈이 차오르니, 모두 다 刺鍼하여 피를 내야 합니다.”

#### 7) 疝과 癰

① “心疝暴痛, 取足太陰厥陰, 盡刺去其血絡.” 『靈樞·熱病』

- “心疝病으로 갑자기 아프면 足太陰經과 足厥陰經을 刺鍼하는데, 그 血絡을 모두 刺鍼하여 없애야 합니다.”

② “癰, 取之陰蹻及三毛上及血絡出血.” 『靈樞·熱病』

- “癰病에는 陰蹻脈과 三毛 위와 그 血絡들을 刺鍼하여 피를 빼냅니다.”

#### 8) 驚風

① “風瘧身反折, 先取足太陽及臍中及血絡出血, 中有寒, 取三里.” 『靈樞·熱病』

- “風瘧證으로 몸이 뒤로 꺾어질 때는, 먼저 足太陽經과 오금 및 보이는 血絡들을 刺鍼하여 피를 뱉니다. 속이 차가우면 足三里를 (함께) 刺鍼합니다.”

#### 9) 水脹

① “黃帝曰, 膚脹鼓脹, 可刺邪. 岐伯曰, 先瀉其脹之血絡, 後調其經, 刺去其血絡也.” 『靈樞·水脹』

- “먼저 脹이 있는 부위의 血絡을 瀉한 후에 그 經絡을 조절해야 하니, 刺鍼하여 그 血絡을 없애니다.”

#### 10) 七情損傷

七情의 이상에 의한 경우 역시 相關 臟腑를 辨別하고 經絡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만 너무 심하게 刺絡하지 말 것과, 神이 虛한 경우에는 刺出血을 삼가하도록 제시한다.

① “帝曰, 神有餘不足何如. 岐伯曰, 神有餘, 則笑不休, 神不足, 則悲. 血氣未并, 五藏安定, 邪客於形, 洒淅起於毫毛, 未入於經絡也, 故命曰神之微. 帝曰, 補瀉奈何. 岐伯曰, 神有餘, 則瀉其小絡之血, 出血勿之深斥, 無中其大經, 神氣乃平. 神不足者, 視其虛絡, 按而致之, 刺而利之, 無出其血, 無泄其氣, 以通其經, 神氣乃平. 帝曰, 刺微奈何. 岐伯曰, 按摩勿釋, 著鍼勿斥, 移氣於不足, 神氣乃得復.” 『素問·調經論』

- “神이 有餘할 때 작은 絡脈의 血을 瀉하여 피를 빼내되 깊이 들어가지 말고, 큰 經脈을 찌르지 않으면 神氣가 고르게 됩니다. 神이 부족한 경우에는 虛한 絡脈을 눌러 氣가 이르게 하고, 刺鍼하여 氣를 잘 통하게 하여, 피를 빼내지 않고 氣가 새어나가지 않으면서도, 經絡을 소통시키면 神氣가 고르게 됩니다.”

② “刺足內踝之下, 然骨之前, 血脈出血, 刺足跗上動脈, 不已, 刺三毛上各一痛, 見血立已, 左刺右, 右刺左. 善悲驚不樂, 刺如右方.” 『素問·繆刺論』

- “足內踝의 아래로 然骨 앞 부분의 血脈을 刺鍼하여 피를 내거나 발등 위의 動脈을 刺鍼합니다. 낫지 않으면 엄지 발가락 三毛 위의 각 혈자리를 刺鍼하여 피를 내면 곧 낫습니다. 잘 슬퍼하거나 놀라서 즐거워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방법과 같이 刺鍼합니다.”

③ “善嘔, 嘔有苦, 長太息, 心中憺憺, 恐人將捕之, 邪在膽, 逆在胃, 膽液泄則口苦, 胃氣逆則嘔苦, 故曰嘔膽. 取三里以下, 胃氣逆, 則刺少陽血絡, 以閉膽逆, 却調其虛實, 以去其邪.” 『靈樞·四時氣』

- “구역질을 자주하며 쓴물을 토하고 길게 한숨을 쉬며, 가슴 속이 울렁거려 다른 사람이 붙잡으려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邪氣가 膽에 있는 것입니다. 胃氣가 거슬러 오르게 되어 膽液이 흘

러나와 입이 쓰고 胃氣가 거슬러 올라 쓴물을 토 합니다. 그러므로 區臆이라고 합니다. 足三리의 아래 부위를 刺鍼하는데 胃氣가 거스르면 少陽經의 血絡을 찔러서 膽氣의 逆上을 가로막고 한편으로 虛實을 조절하여 邪氣를 몰아냅니다.”

12) 墮墜

跌打損傷 등의 外傷의 경우에서도 證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서 經脈別 辨證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① “人有所墮墜，惡血留內，腹中滿脹，不得前後，先飲利藥，此上傷厥陰之脈，下傷少陰之絡。刺足內踝之下，然骨之前，血脈出血，刺足跗上動脈，不已，刺三毛上各一瘡。見血立已，左刺右，右刺左。”『素問·繆刺論』

- “사람이 떨어지거나 엎어져서 惡血이 속에 머무르면...이것은 위로는 厥陰脈을 상하고 아래로는 少陰의 絡脈을 상한 것이니, 足內踝의 아래로 然骨 앞 부분의 血脈을 刺鍼하여 피를 내거나 발등 위의 動脈을 刺鍼합니다. 낫지 않으면 엄지 발가락 三毛 위의 각 혈자리를 刺鍼하여 피를 내면 곧 낫습니다. 잘 슬퍼하거나 놀라서 즐거워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방법과 같이 刺鍼합니다.”

14) 기타

① 代脈이 나타날 경우

“盛則瀉之，虛則補之，緊痛則取之，分肉，代則取血絡，且飲藥，陷下則灸之，不盛不虛，以經取之，名曰經刺。”『靈樞·禁服』

- “...代脈이 있으면 血絡을 刺鍼하고, 또한 藥을 복용합니다.”

② 暴瘡

“暴瘡氣鞭，取扶突與舌本出血。”『靈樞·寒熱病』

-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며 목이 무엇이 걸린 듯 매일 때는 扶突穴과 舌本을 刺鍼하여 피를 냅니다.”

③ 男子如蠱，女子如疽

“男子如蠱，女子如疽，身體腰脊如解，不欲飲食，先取湧泉見血，視跗上盛者，盡見血也。”『靈樞·熱病』

- “남자가 蠱病이 있거나 여자가 미혹되는 병이 있으면, 신체 허리가 풀어지는 것 같으며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니, 먼저 湧泉穴을 자침하여 피를 내고, 발등의 성한 血脈을 살펴서 모두 피를 빼내야 합니다.”

④ 衄而不止

“衄而不止，衄血流，取足太陽，衄血，取手太陽，不已，刺宛骨下，不已，刺臑中出血。”『靈樞·雜病』

- “쏟은 피가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 手太陽經을 刺鍼하는데, 낫지 않으면 宛骨 아래를 刺鍼하고 낫지 않으면 오금 가운데를 刺鍼하여 피를 냅니다.”

Ⅲ. 考 察

인체의 經絡은 氣血運行的 통로로서 陰陽의 氣가 이를 통해 소통되며, 인체를 그물망처럼 감싸면서 經脈은 주된 幹線으로, 絡脈은 經脈에서 갈라져 나온 支線으로 마치 도로망처럼 기혈의 순환 계통을 이룬다.

絡脈은 다시 十五絡脈, 孫絡, 浮絡, 血絡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刺絡瀉血 치료법은 주로 絡脈에서 갈라진 가지인 孫絡, 또 떠 있는 것처럼 얇게 淺表부위에 분포된 浮絡, 얇은 표층에 분포된 가늘고 작은 동맥, 정맥과 모세혈관 등을 가리키는 血絡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刺絡瀉血 치료법은 刺絡療法은 血絡刺法이라고도 하며, 이는 鋒鍼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된 三棱鍼 등으로 환자 絡脈 중 孫絡, 浮絡, 血絡 등을 刺絡하여 瀉血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瀉血法이라기 보다는, 刺絡瀉血 치료법의 원리는 臟腑의 위치, 경맥순행의 규율 및 질병의 虛實, 臟腑病과 經絡病의 변증, 陰陽의 평형 등을 충분히 관찰하고 시술하여야 氣血의 허



실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 治療法은 瀉血하여 血脈의 瘀滯를 소통시켜 氣血운행이 순조롭고, 陰陽이 조화되어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임상에서는 주로 이 치료법의 開竅泄熱, 活血祛瘀, 消腫止痛 등의 작용이 증명되었는데, 타박 등 국소적인 瘀血을 없애는 목적으로 한 癱瘓, 疼痛, 痺證의 실증에 주로 응용하여 왔다. 이를 이용할 때 감염과 내출혈, 暈鍼(腦血虛), 내장손상 등은 주의하여야 한다. 開竅泄熱의 작용으로 救急療法에 응용할 때는 十井穴, 十仙穴 특히 少商, 隱白, 鬼哭穴 등을 소량 출혈하는 경우가 많고, 活血의 경우는 痺證의 實證에 癱瘓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消腫은 癰腫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診斷과 治療에서 볼 때, 血絡刺法의 치료대상 중에서 經脈의 瘀血은 비교적 큰 整脈瘀血으로 형태가 아주 선명하고 색은 紫藍色이며 팽창 상태이므로 靑筋이라고도 하며 대개 委中이나 尺澤 등의 관절부분에 나타난다. 絡脈의 瘀血은 비교적 작은 整脈瘀血으로 형태가 구불구불하여 작은 벌레나 실오라기 같고 색은 紫色이나 赤色이며 癭脈, 然谷, 魚際, 四縫 등의 부위에 나타난다. 孫絡의 瘀血은 모세혈관의 瘀血으로 부위는 일정하지 않고, 혹은 퍼져서 痧疹으로 혹은 모여서 瘀斑으로 전신 어느 곳에서나 모두 나타나며 면적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색은 紫色 혹은 赤色을 띤다. 丹毒, 疔瘡 등과 같은 일반 급성병은 물론 癩疾, 胃腸病, 喘息과 같은 만성 고질병에서도 척추 양쪽에서 반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반점을 자침하면 증상이 즉시 경감된다.<sup>12)</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 『黃帝內經』의 刺絡瀉血 치료법의 관련 조문을 분류하고 살펴 본 결과 刺絡瀉血 치료법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단순한 刺出血 요법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臟腑經絡이론에 바탕하여 臟腑와 經絡別 치료요법으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刺絡瀉血 요법도 臟腑病證과 經絡病證의 체계에 따라 시술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sup>13)</sup>. 한편 藏府와 經絡은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되지는 않아도, 치료에서 장부의 絡屬관계에 따라 經絡과 臟腑別로 辨證과 分類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刺絡瀉血 치료법을 臟腑經絡이론에 근거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치료법으로 연구하고 임상적 활용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IV. 結 論

본 연구에서는 『黃帝內經』의 刺絡瀉血 치료법의 관련 조문을 분류하고 살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血은 有形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막히면 응결되기 쉽다. 絡脈, 孫絡에 血이 凝結되는데, 락맥을 자침할 때 絡脈 상의 結聚된 부분을 刺鍼하여야 한다. 奇邪의 경우에는 繆刺法을 사용한다. 刺絡瀉血을 통해 울결된 기혈이 소통되고, 邪氣를 제거하여 氣血을 조리하고 陰陽이 평형을 이루어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을 이룬다.
2. 邪血이 結聚되어 凝結된 곳을 자세히 손으로 더듬어 짚어 보고, 형태를 관찰한 후에 結絡된 부분을 瀉血하여 제거될 때까지 刺出血을 유도한다. 이 때 血色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각 血脈의 色을 통해, 邪血의 성질을 판단할 수 있으며, 刺絡한 邪血의 색 변화를 통해 刺絡의 정도를 정할 수 있다.

13) 다만, 經脈病證과 絡脈病證을 비교해 볼 때, 經絡流注와 관련된 病證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絡脈과 관련된 病證은 가장 表部에 있는 病證이기 때문에 病證이 脈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며, 病證 또한 經脈病證보다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絡脈病證은 症狀 發顯部位가 일정하지 않아 上下나 左右로 불규칙하게 옮겨 다니거나,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특징이 있다. (趙大震, 臟腑辨證과 經絡辨證의 區分에 관한 研究. 大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1), p. 71-73.)

12) 康鎭彬 主編, 經典鍼灸學, 서울, 一中社, 2000, p. 246-250.

3. 역대로 자락요법에 쓰인 도구는 砭石, 鋒鍼, 鑱鍼, 鈹鍼, 毫鍼 등이 있었는데, 후대에는 鋒鍼의 기초에서 三稜鍼을 만들게 되었고, 刺絡方法도 다양해져서 임상 응용이 확대되었다.
4. 刺絡瀉血 후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는 이상반응, 副作用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정상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병정을 잘 살피고, 血絡의 부위와 형태를 세밀히 관찰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刺法 중에서 刺絡法과 관련하여 五刺法 중 豹文刺, 九刺法 중 經刺와 絡刺, 十二刺法 중 贊刺와 연관된다.
6. 刺絡瀉血 요법은 『黃帝內經』에서 經絡에 따라, 臟腑에 따라 그 異常部位를 치료하는 수단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현재는 局所部位의 치료요법으로 채택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黃帝內經』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刺絡瀉血 치료법 적용 시에 더욱 經絡과 臟腑에 소속되는 辨證이 필요하다.
7. 각 病症은 經絡이나 臟腑와 연관되는 부위가 있으면 또한 그 해당 經絡이나 臟腑, 혹은 표리관계에 있는 臟腑나 經絡을 刺絡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많은 부분이 역시 經絡, 臟腑에 따른 辨證이 필요한 치료법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刺絡瀉血 치료법은 단순한 刺出血 요법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臟腑經絡이론에 바탕하여 臟腑病과 經絡病의 치료요법으로 제시되었으며, 좀 더 체계적인 치료법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임상적 활용을 확대시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V. 參考文獻

### <논문>

1. 趙大震. 臟腑辨證과 經絡辨證의 區分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1).

### <단행본>

1.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2. 洪元植 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00.
3.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 上下. 서울. 醫聖堂. 2000.
4. 張登本. 白話通解黃帝內經. 西安.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5. 康鎖彬, 焦君良, 許秀蘭, 葛建軍, 楊繼軍. 經典鍼灸學. 서울. 一中社. 2000.
6. 洪元植 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9.
7.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中. 北京. 北京出版社. 1999.
8. 崔容泰 代表著. 鍼灸學 下. 서울. 集文堂. 1994.
9. 張介賓. 類經. 經絡之辨刺診之法.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8.